|  |  |
| --- | --- |
|  | **2022. 2. 10.**  **보도자료** |
| **󰂕 07237 서울특별시영등포구 국회대로68길 23 정원빌딩 6F**  **☎02-785-9564 Fax02-785-9565 이메일**[**sti9564@gmail.com**](mailto:sti9564@gmail.com)**홈페이지**[**https://goodsti.com**](https://goodsti.com/) | |
|  | |

**[제20대 대선 2030 패널조사] 2030세대의 대선 인식 어떠한가**

이번 대선에서 2030세대와 4050세대는 정부여당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이번 대선에 대한 표심과 정치의식을 세대별, 성별로 비교하고 특히 2030세대의 여론을 파악하기 위해 중앙일보와 한국정당학회가 기획하고 여론조사기관 에스티아이가 실시한 제20대 대선 2030 패널조사에서 나타났다.

(조사결과는 18~39세와 4~50대로 나누어 분석하였는데 이 자료에서는 편의상 ‘2030세대’와 ‘4050세대’로 표기하였습니다.)

2030세대는 ‘정치에 관심있다’ 혹은 ‘대통령선거에 관심이 있다’라는 응답은 4050세대에 비해 다소 낮았다. 정치에 관심이 ‘있다’는 응답은 2030세대에서 74.3%로 4050세대의 82.0%보다 다소 낮았고, 대통령 선거에 관심이 ‘있다’는 응답 역시 2030세대에서 84.1%로 4050세대의 90.4%보다는 약간 낮았다. 그에 비해 대선 투표의향에서는 2030세대에서 91.8%, 4050세대에서 93.4%로 크게 차이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평가에서는 좀더 분명하게 차이가 나타났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2030세대에서 31.9%로 4050세대의 46.6%보다 낮았고, ‘잘 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030세대 68.1%, 4050세대 53.4%로 나타났다.



대선과 관련해 ‘심판론’과 ‘안정론’에 대한 선택은 서로 엇갈렸는데, 2030세대는 ‘심판론’에 대한 응답이 높았고, 4050세대는 ‘안정론’에 대한 응답이 높았다. ‘현 정부 심판을 위해 야당 후보를 지지해야 한다’는 소위 심판론을 선택한 응답은 2030 세대 35.8%, 4050세대 33.4%로 크게 차이나지 않았다. 반면 ‘정치적 안정을 위해 여당 후보를 지지해야 한다’는 소위 안정론을 선택한 응답은 2030세대 26.5%, 4050세대 40.6%였다. 에스티아이의 이준호 대표는 이에 대해, “현 정부에 대한 심판 여론은 세대에 따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에 반해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정권을 잡는데 대해서는 2030 세대의 신뢰가 상당히 낮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30 세대의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37.7%로 나타났다는 점도 눈에 띈다. 심판론과 안정론 사이에서 선택을 유보하는 이들의 여론이 향후 판세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해석하였다.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59세 이하 유권자 2,100명이 응답하였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1%포인트다. 스마트폰 앱조사 방식으로 실시되었으며,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www.nesdc.go.kr)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제20대 대선 2030 패널조사] 2030세대는 여당에 대한 정당 친밀도와 후보지지도 모두 낮아**

이같은 세대간 차이는 대선 지지후보와 관련된 응답에서도 확인되었다.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건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가 2030세대 28.9%와 4050세대 47.1%로 큰 차이를 보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대 정당 후보에 대한 지지층은 4050세대에서 대략 70%에 가까웠지만, 2030세대에서는 50%를 약간 넘긴 수준이었다. 2030세대는 심상정, 안철수 후보 지지가 4050세대에 비해 다소 높았고, 지지후보가 없다거나 잘 모르겠다는 응답도 4050세대에 비해 다소 높았다.



현재 지지하는 대선후보를 바꿀 의향이 있는지 질문에 2030세대는 33.2%, 4050세대는 23.2%가 ‘있다’라고 응답했다. 에스티아이 이준호 대표는 이와 관련해 “2030 유권자 3명 중 1명은 지지후보 변경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2차, 3차 조사에서 이들 패널의 표심이동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최근 양 후보의 도덕성 관련 논란과 TV토론 등과 같은 변수가 어떻게 작용할지도 주목되는 지점이다”라고 해설하였다.



‘친밀하게 느끼는 정당’에 대한 응답에서 ‘국민의힘’, ‘정의당’, ‘국민의당’에 대한 응답은 세대별로 비슷하였는데,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응답은 2030세대 24.7%와 4050세대 38.6%로 상당히 차이를 보였다.



|  |
| --- |
| 조사 의뢰자 | 중앙일보, 한국정당학회  선거여론조사기관 | (주)에스티아이  조사지역 및 대상 | 전국 만 18세 이상 59세 이하 남녀  조사일시 | 2022년 1월 19일 ~ 25일  조사방법 | 구조화된 질문지(Structured Questionnaire)를 사용한 스마트폰 앱 조사  표본의 크기 | 2,100명  피조사자 선정방법 | 성·연령·지역으로 층화된 패널에서 무작위 추출  응답률 | 91.6% (총 13,940명에게 발송, 2,293명 접촉, 2,100명 응답 완료)  가중값 산출 및 적용 방법 | 성별, 연령, 권역에 따른 가중치를 적용  (2021년 12월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 ±2.1%p  질문내용 | 대선투표의사, 대선후보 지지율 등 선거에 대한 인식 |

**[조사 소개] 제20대 대선 2030 대선 패널조사**

 ‘제20대 대통령선거 2030 패널조사’(이하 2030 패널조사)는 한국정당학회와 중앙일보에서 기획하여 1월 19일부터 1월 25일까지 여론조사기관 에스티아이에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패널조사는 동일한 유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에 대한 내용 및 투표 의사를 시간을 두고 반복하여 질문하면서 추적하는 조사방법입니다. 특히 2030세대를 파악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기획되어, 이번 대선에 대한 정치의식과 표심을 세대별, 성별로 비교하여 보는 데에 유용한 자료로 사용될 것입니다.

2030 패널조사는 이번 1차 조사를 포함하여 총 3차에 걸쳐 진행됩니다. 1차 조사에서는 정치에 대한 관심과 후보자 및 정당에 대한 호감도, 응답자와의 이념적 거리, 각 주요 정책에 대한 인식 등을 파악하고 대선 지지와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습니다. 1차 조사가 이루어진 뒤 약 한 달 뒤 투표에 임박한 시점에 2차 조사를 실시하여 유권자들의 인식 변화를 파악하며, 대선 투표 직후에 3차 조사를 실시하여 투표 이유와 대선 결과에 대한 평가 등을 청취할 계획입니다.

2030 패널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59세 이하 유권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30세대를 중심으로 연령별, 성별 차이와 그 이유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되어, 2030세대와 그 비교군인 4050세대를 조사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므로 60대 이상 응답자가 없음에 유의하여 조사결과를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2030 패널조사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조사로 진행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선거 여론조사는 전화를 통해 면접원의 음성이나 ARS 녹음된 음성으로 조사하는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어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조사는 새로운 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앱 조사는 질문내용을 음성이 아닌 문자로 제시하기 때문에 응답자가 훨씬 이해하기 쉽고 따라서 정확한 응답을 얻는 데에 더 유리합니다. 다양한 정책이슈, 후보자와 정당에 대한 다방면의 평가를 진행하는 이번 조사의 성격에도 부합하는 조사방법입니다.

2030 패널조사의 표본은 회원가입 등으로 구축된 기존 온라인 패널에서 추출하였습니다.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현황(2021년 12월 기준)에서 확인된 인구 구성비에 따라 성, 연령, 지역별 층화 무작위 추출하였습니다. 기존 온라인 패널은 패널에 가입하지 않은 유권자가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는 제한성이 있으나, 조사대상에 해당하는 패널 수가 175,972명에 달하고 그 조사결과가 여타 다른 표집틀을 이용한 조사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점을 감안해 표집틀로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조사가 일회성 지지율 확인을 위한 조사가 아니라 시일을 두고 반복 실시하는 패널조사로 진행되므로 정확성을 기하여 조사대상을 선정하는 데에 유리한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최대 허용 오차 범위는 ±2.1%포인트(신뢰 수준 95%), 응답률은 91.6%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십시오.

여론조사 공표보도사항 바로가기 : <https://url.kr/lsy5na>.